

“야속한 불펜” 류현진, 시즌 10승 날려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1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엔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1회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2회 말 1사 후 에인절스 칼훈에게 중월 솔로 홈런을 허용해 8경기 만에 첫 피홈런을 기록했다.

야속한 불펜이다. LA 다저스 불펜진이 류현진(32)의 승리를 날리고 말았다. 류현진은 개인 통산 50승과 시즌 10승 달성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류현진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스 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7피안타(1홈런)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류현진의 위기관리 능력은 여전했다. 이날 수 차례 위기를 만났지만 모두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2회 말 1사 2루, 4회 말 2사 2루, 5회 말 무사 1, 2루, 6회 말 2사 1, 2루의 위기에서 점수를 허락하지 않았다. 2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콜 칼훈에 중월 솔로 홈런을 얻어맞아 내준 1점이 이날 유일한 실점이었다.

6회 말까지 마운드를 지킨 류현진은 다저스가 3-1로 앞선 7회 말 마운드를 넘겼다.

6이닝 동안 7피안타(1홈런) 1실점으로 ‘호투’ 개인 통산 50승도 날아가…위기관리 능력 여전

드를 불펜에 넘겼다.

이날 경기 전까지 9승 1패를 기록 중이던 류현진은 다저스 불펜진이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리드를 지켜내면 올 시즌 메이저리그 투수 가운데 가장 먼저 10승 고지를 밟을 수 있었다.

류현진은 루카스 지올리토(시카고 화이트삭스), 제이크 오도리지(미네소타 트윈스), 저스틴 발랜더(휴스턴 애스트로스), 도밍고 헤르만(뉴욕 양키스)과 나란히 메이저리그 다승 공동 선두를 질주 중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바로 개인 통산 50승이다.

2013년 빅리그에 데뷔한 류현진은 왼 어깨와 팔꿈치 부상으로 2015~2016년 암흑기를 보내 50승 달성이 다소 늦었다. 하지만 부상을 털고 돌아와 쌓아올린 기록이기에 의미있었다. 한국인 투수가 빅리그에서 개인 통산 50승을 넘긴 것은 박찬호(124승 98패)와 김병현(64승 60패) 뿐이다.

하지만 류현진이 내려가자마자 다저스 불펜진은 류현진의 승리를 날리고 말았다.

7회 말 류현진의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오른 로스 스트리플링은 선두 타자 윌프레도 토바를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루이스 렌히포에 좌전 안타를 맞았다. 스트리플링은 토미 라스텔라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다저스 벤치는 다시 한 번 마운드를 교체했다. 달런 폴로로가 마운드를 이어받았다.

폴로로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거포 마이크 트라웃에게 6구째 슬러

와 더불어 통타당해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동점 투런포를 얻어맞았다.

류현진의 승리가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트라웃을 상대로 7타수 무안타로 강했던 류현진은 마운드에 있는 동안 트라웃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트라웃은 1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2회 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5회 말 2사 1, 3루의 찬스에서도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류현진은 첫 패스트볼을 결정구 삼아 트라웃을 두 차례나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류현진에 핏공 맞았던 트라웃은 류현진이 마운드를 내려가자마자 거포 본능을 한껏 자랑했다.

다저스는 불펜이 가장 큰 고민이다. 선발 투수부터 마무리 투수 켈리 잰슨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다.

류현진, 클레이튼 커쇼, 마에다 겐타, 워커 볼러, 리치 힐로 이어지는 다저스 선발진은 리그 최고로 꼽힌다. 이날 경기 전까지 다저스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2.77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가운데 2위였다.

하지만 이날 경기 전까지 다저스 불펜 평균자책점은 4.33으로 16위에 머물러 있다.

이날 경기는 다저스의 불펜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다. 다저스는 3-3으로 맞선 8회 말 등판한 조 캘리가 이닝 동안 3개의 볼넷을 헌납하면서 2실점(1자책점)으로 무너져 3-5로 역전당했고, 그대로 졌다.

류현진 입장에서 2회 이후 주가점을 내지 못한 타선도 아쉽다.



“이번엔 영암에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라운드 16일 개막

2019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라운드가 16일 전라남도 인제군의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열린다. 그동안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치렀던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올 시즌 처음으로 KIC에서 선을 보인다.

본격적인 승수 쟁기에 나선 김종겸(아트라스BX 모터스포츠)은 2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ASA 6000 클래스 챔피언에 오른 김종겸은 2라운드에서 시즌 첫 승을 따내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로 올라섰다.

김종겸은 지난해 이곳에서 치러진 3라운드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김종겸이 ASA 6000 클래스에 참가한 이래 첫 우승으로 시즌 챔피언의 사발잡이됐다.

KIC에 대한 좋은 기억은 조항우(아트라스BX 모터스포츠)도 만만치 않다. ASA 6000 클래스의 최단 시간 랩 타임 기록(코스 레코드)은 조항우가 2015년 10월 17일 이곳에서 세운 2분11초673이다. KIC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버 중 1인 셈이다. KIC에서 열린 역대 21번의 경기 중 6차례나 폴 포지션을 차지하며 이 부문 최다 기록

도 가지고 있다.

ENM 모터스포츠 베테랑 듀오 오일기와 정영일은 지난 4일 인제 스피드웨이를 치른 2019 시즌 2차 오픈 테스트에서 빠른 기록을 내며 3라운드 기대감을 높였다.

ASA 6000 클래스 뿐 아니라 투어링카 레이싱인 GT1과 GT2 클래스 BMW M4 쿠페의 원메이크 레이싱인 BMW M 클래스 개성만점의 MINI 쿠퍼들이 나서는 MINI 챌린지 코리아,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레디컬 컵 아시아 등 다양한 레이싱이 KIC에서 펼쳐진다.

이벤트 존에서는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증강현실(AR)을 통해 ASA 6000 클래스 차량을 살펴보고, 드라이버 카드를 수집할 수 있는 슈퍼레이스 AR은 새로운 장소인 영암 KIC에서도 이어진다. 레이싱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슈퍼레이스 버추얼 챔피언십, 어린 아이들도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드라이빙 스쿨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도 마련됐다.

영암=조대호 기자

위기서 몬스터 모드 류현진, 집중력은 이미 사이영상

득점권 피안타율 0.38

류현진(32·LA 다저스)이 또다시 몬스터급 집중력을 선보였다.

류현진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스 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LA 에인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7피안타(1피홈런) 1사구 6탈삼진 1실점 호투를

펼쳤다.

이날 류현진은 98마일(시속 150km)에 이르는 포심패스트볼, 컷패스트볼, 투심패스트볼과 함께 체인지업, 커브를 던져 상대 타선을 봉쇄했다. 경기 초반 변화구 위주의 피칭을 하다가 패스트볼을 던지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린 것이 주효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몬스터 모드를 보여줬다.

류현진은 2회 변화구를 통타당했다. 류현진은 1사 후 콜 칼훈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다. 체인지업이 한 가운데로 물렸고, 변화구를 기다린 칼훈은 장타를 만들어냈다. 이어 세자르 푸에요에게 2루타를 허용했다. 이 역시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물리면서 장타를 맞은 것이다.

2회 추가 실점을 막은 류현진은 3회부터 9회에 이르는 빠른 직구

와 함께 컷패스트볼로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았다. 특히 2사 후 강타자 마이크 트라웃을 상대할 때 살짝 가라앉은 컷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3-1로 앞선 5회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선두타자 조너선 투크로이와 윌프레도 토바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무사 1, 2루 위기에 처했다. 류현진의 투구는 위기에서 빛을 받았다. 낫카 큰 커브로 루이스 렌히포를 삼진으로 처리했다. 이후 2사 후에는 트라웃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다.

강정호, 3타수 무안타 침묵…타율 0.133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홈런을 친 다음날 무안타로 침묵했다.

강정호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선트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원 열구리 열좌로 지난달 14일 부상자명단에 올랐던 강정호는 지

난 9일 빅리그에 복귀, 대타로 나서 무안타에 그쳤다. 전날 복귀 이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강정호는 시즌 5호 홈런을 때려냈지만, 이날은 또다시 안타를 치지 못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133(9타수 13안타)으로 내려갔다. 피츠버그는 애틀랜타와 23안타를 주고받는 난타전을 벌인 끝에 7-13으로 졌다. 4연패에 빠진 피츠버그는 35패(30승)를 당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란 구래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곡, 화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묵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